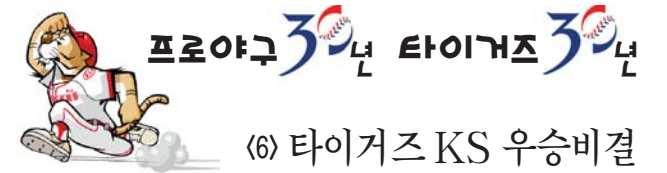




벚꽃길 달리는 '투르 드 코리아'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주최하는 국내 최대 도로사이클 대회 '투르 드 코리아' 6일째인 20일 선수들이 충북 단양군 대강면 벚꽃길을 달리고 있다. 이날 말레이시아의 모하메드 오트만은 충북 충주시청에서 출발해 경북 영주 시민운동장까지 펼쳐진 6구간 138.8km 코스에서 3시간39분23초 만에 결승선을 통과해 우승했다. <국민체육진흥공단 제공>



《6》 타이거즈 KS 우승비결

해태 타이거즈의 한국 시리즈 우승 7기회는 예상외로 빨리 찾아왔다. 삼성이나 롯데 같은 메이저 그룹의 방계회사 하나보다 매출액이 적은 해태그룹의 열악한 지원만으로는 우승은 요원해 보였다. 그러나 스포츠는 변수가 많은 예측 불가능한 영역이었다. 몇 가지 조건과 약간의 행운이 의외의 결과를 만들어 내고 있었다. 타이거즈가 우승할 수 있었던 원동력을 찾아본다. 첫째는 이상윤이란 결출한 투수가 있었다는 것이다. 광주일고-한양대를 거쳐 타이거즈의 원년 멤버로 입단한 이상윤은 원년에는 7승5패 방어율 3.88이란 성적을 냈지만, 1983년 신무기인 파워 커브의 위력을 보강해 20승10패6세이브 방어율 2.67이란 뛰어난 성적으로 막강 마운드의 선봉에 섰다. 한국 시리즈에서도 2승2세이브에 무승부경기서 8이

'교통사고' 김봉연의 투혼 팬들 성원이 'V' 원동력

님 1실점 호투로 그의 존재 가치를 확인해주며 우승의 주역으로 우뚝 섰다. 이상윤을 백업한 투수로는 김용남(13승10패1세이브, 방어율 2.67)과 제일동포 잠수함투수 주동식(7승7패3세이브, 방어율 3.14) 등이 있었다. 둘째는 김중모(타율 0.350, 11홈런 44타점), 김성환(타율 0.327, 7홈런 40타점), 김봉연(22홈런 59타점) 그리고 김일권(48도루) 등의 강력한 중심타선이다. 셋째는 제일동포 '스마일 포수' 김무중, 친화력을 기반으로 한 뛰어난 인사이드 워크와 방심할 타순에 배치되어 결정적일 때 한 방을 터트리며 상대를 무너뜨리는 공격력까지 겸비해 팀의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소화해낸 것이다. 넷째는 시즌 중 불의의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었던 김봉연이다. 김봉연은 중상을 극복하고 불과 40일 만에 컴백, 한국시리즈에서 타율 0.474 1홈런 8타점으로 한국시리즈 MVP에 오르는 인간승리의 진수를 보여주었다. 다섯째는 냉철한 이성과 판단력을 기반으로 강력한 카리스마를 발휘해 뉴리더십의 장을 개척한 '코끼리' 김응용 감독의 용병술이 빛을 발했다. 또 프런트에서 이상국이란 능력있는 행정가가 선수단을 지원해준 것도 큰 힘이 되었다. 마지막으로 전국 어디를 가도 내 가족과 같이 혼을 곁들여 열렬하게 성원해주는 팬이 가장 많다는 것과 필자와 같은 전문가들이 선수들의 경기력향상과 건전한 관전 문화 창달에 일조했다는 것도 큰 요인이 될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타이거즈의 우승은 투타에서 결출한 스타가 존재했다는 것, '역전의 명수' 군산상고 출신들이 주축이 된데다 좌장인 김봉연이 보여준 투혼 즉 무중의 '타이거즈정신'과 열화와 같은 팬들의 성원에서 발원되었다고 할 수 있다.



김재요 <조선이공대 교수·한국이규기독교학회장>

스포츠 메카로 떠 오른 나주 목사골서

전남 체육 최강자 가린다



유채꽃이 흐드러진 나주에서 전남체육인들의 축제 한마당이 펼쳐진다. 제50회 전라남도체육대회가 22일 성화안치를 시작으로 25일까지 4일간의 열전을 벌인다. 19년만에 나주에서 개최되는 이번 대회에는 전남지역 22개 시·군에서 6300여명의 선수단이 찾아 18개 정식종목과 역도와 바둑 등 시범종목, 인라인 롤러 등 전시종목에서 실력을 겨루게 된다. 가족참가자들이 대거 출사표를 던졌고 4쌍의 쌍둥이들도 이색참가자로 눈길을 끈다. 광저우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인 불링의 최복음(광양)을 비롯한 4명의 현 국가대표들도 시·군의 명예를 걸고 대회 참가를 준비하고 있다. 이번 대회부터는 도내 최대 규모의 체육행사에 걸맞게 전라남도민체육대회에서 전라남도체육대회로 이름을 바

22개 시·군 6300여명

내일부터 4일간 열전

꿘다. 이에 발맞춰 입장식 인원을 확대하고 홍보물 지참을 허용하는 등 풍성한 개회식을 준비했다. 또 길거리 농구와 인라인 롤러를 전시종목으로 채택해 시·군에서 활동하는 동호인들의 출전 기회를 확대했다. 배드민턴 종목은 단체전에서 개인전으로 경기방식이 변경됐다. 나주시는 이날 초 이빈 체전이 치러질 나주종합스포츠타워의 문을 열었다. 다목적체육관과 1만명 수용규모의 종합운동장은 나주시를 전남 체육의 새로운 메카로 부상하게 할 것으로 보인다. 종합운동장은 육상 4000m 트랙 8레인과 보조경기장 1면, 농구장 등을 갖췄다. 체육대회기간 경기장을 밝힐 성화는 21일 오전 10시 금성산 노적봉(제1 채

화지)과 영산강 둔치 체육공원(제2 채화지)에서 채화된다. '역사와 함께하는 영산강 길'로 명명된 제 1봉송로는 영산포 둔치와 영산포 여중-반남-문평을 거쳐 금성관에 도착하며, '미래로 향하는 빛가람 길'로 명명된 제 2봉송로는 금성산에서 노안과 금천, 산포와 동점문을 거쳐 금성관으로 향하게 된다. 이날 오후 5시 합화된 성화는 금성관에서 하룻밤을 지낸 뒤, 22일 오후 6시 30분 최종 주자에게 전달돼 성화대에 불을 밝히게 된다. 한편 나주시는 선수단과 관광객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먹을거리를 제공하고 나주의 문화관광자원을 알리기 위해 영산포 선창변 6만6115㎡(2만평)에 유채꽃밭을 조성, 22일부터 3일간 '2011 영산포 흥어 축제'도 함께 개최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3·2·1... 영암 '스피드 향연' 보라

24일 슈퍼레이스 개막 연예인 류시원 등 출전



국내 최고 모터스포츠대회인 2011 티빙닷컴 슈퍼레이스 개막전이 오는 24일 영암 F1경주장에서 열린다. 개막전에는 김의수, 카를로 반담 등 국내외 정상급 선수와 연예인 류시원, 김진표, 이화선 등 50여명이 참가해 4개 종목에서 스피드를 겨룬다. 가장 주목받는 최고배기량 종목 헬로TV전에서는 지난해 챔피언 밤바 타쿠(일본·시게인)와 김의수(CJ레이싱), 카를로 반담(네덜란드·EXR팀106) 등 국내외 정상급 선수들이 격돌한다. 경주차는 자동차 메이커의 완성차가 아닌 경주용으로 만들어진 6000cc급 425마력대 스톡카다. 다음으로 높은 배기량 클래스는 현대차 제네시스스쿠페전이다. 3800cc의 잔류전은 연예인 레이서 류시원(EXR팀106), 이승진과 조항우(이상 아트라스BX) 등 17대의 단일 경주차가 레이스를 벌이는 클래스다. 유경욱(EXR팀106), 석동빈(바보몰), 박상무(키스파오)도 출사표를 던졌고 헬로TV클래스에 출전하는 카를로스 반담과 안석원(CJ레이

싱)은 헬로TV전에 이어 이 종목에도 중복 출전해 자웅을 가린다. 또 여성 카트카레이서 출신 권봄이(팀챔피언스)가 첫 출전에 남자 선수들과 경쟁을 벌인다. 슈퍼2000 클래스도 뜨거운 경쟁의 장이 된다. 이재우와 김진표(이상 쉐보레), 박시현(Kidom), 여진영(르노삼성) 등 지난해 경쟁이 치열했던 선수들이 다시 도전장을 던진다. 카레이서 입문단계로 불리는 N9000 클래스에는 정희원과 이화선(Ktcom), 김봉현(정인레이싱) 등이 참전한 레이서로 차세대 톱 드라이버 자리를 놓고 대결을 펼친다. 지난해 챔피언인 정희원을 겨냥해 여성 연예인 드라이버 이화선 선수 등 7명이 개막전 우승으로 기선 제압에 나서겠다는 각오다. 입장료는 무료이며, 영암 서킷의 최고 좌석인 메인그랜드스탠드에서 관람할 수 있다. /김지들기자 dok2000@

www.geumssoojang.com Since 1981 1등 맛집 연속 선정 30년을 고객과 함께 지켜온 광주의 대표 맛집

고맙습니다. 금수장 창립 30년

피로연, 세미나, 가족모임에 모두가 좋아하는 한정식으로 즐기세요.

평일 주중 점심 특선 **오찬정식 15,000원** 30년 전통의 한정식 **30,000원부터**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예약문의 (062)525-2111 계림동 홈플러스 건너편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연회장 | 세미나를 위한 영상, 음향시설 | 광주 와인 문화1번지 모리나리 | 맞춤형 출장도시락

엔탁가구전

4월 30일까지 특별가 판매 식탁·좌탁·거실TV장·침대

이태리 직수입 → 도소매 신상품 다량 전시 밀라노 5개사 한국총판

화정동점과 본점상품은 겹치지 않습니다. ITALY

홍스페이스 SPACE 062-226-7567

| 화정동점 | 서구 화정동 307-1 화정역사거리(메디피아 신축병원 옆 400평) | 본점 | 동구 장동 58-15 문화전당 장동로타리 (홍스페이스 가구빌딩)